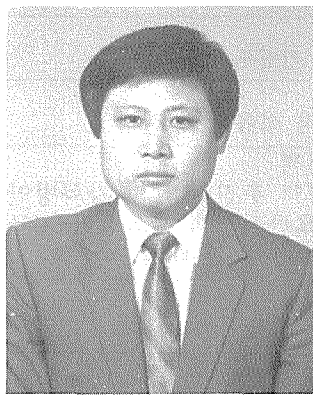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呂榮來
(에너지경제신문기자)

Why Not The Best ?

이를 우리말로 풀어 해석하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로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짧은 영문물음이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4가지 뜻을 담고있는 단어가 합성된 이후에 제시하고 있는 「의미」를 복잡다난한 격변기의 환경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하는 엄청난 힘을 내포하고 있는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명언이 등장하게 된 어원을 찾아보자면 지난 1977년부터 81년까지 美國의 제39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땅콩장수」 출신의 지미카터가 해군장교로 복무할 시절이었던 1952년 4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美해군은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노틸러스號」를 건조중에 있었다.

前代未聞의 세계최초 핵잠수함의 최초 함장후보에 선발된 카터를 면접하게 된 리코버 해군제독은 물었다.

「귀관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성적이 몇등이었나?」이

에 대해 카터후보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전체 8백20명중 59등 했습니다」 당연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의기양양해 하는 카터후보에게 제독은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귀관은 최선을 다했나?」 「아닙니다」 제독은 또다시 물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훗날 지미카터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자서전을 냈다. 그 제목이 바로 「Why Not The Best?」(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였다.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충대충 넘어가기」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 풍조에 한번쯤 되새겨볼 필요성이 요구되는 교훈이 아닐수 없다.

이를 우리와 아주 근접해 있는 석유업계를 비롯한 에너지관련부문에 국한시켜 고찰해 보더라도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動資部(정부)가 주관이돼 추진중인 원자력발전 소건설, 석유비축기지건설, 송유관건설사업등 정부주도의 에너지시설확충사업을 비롯 국내 석유류 수요급증에 따른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精油 5社가 몰두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저유소확장계획이 대상입지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사태만 보더라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 및 각종 석유류의 소비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키위해 정부주도로 추진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건설, 추가비축기지건설 및 남북을 잇는 송유관 건설사업등이 한결같이 사회전반에 걸쳐 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NIMBY 현상)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직면, 예정된 工期内的 완공은 불가능한 실정이거나 건설계획 자체가 아예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油公·湖南精油·雙龍精油등 정유업계가 정제능력의 증대와 수급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에 있는 저유소확충사업도 부지선정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으로 한발짝도 전진시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것 또한 현실이다.

이와같이 정부가 주관하던 민간업계가 주도하던간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이라는 惡材에 발목잡혀 이렇지

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업추진상의 딜레마현상」에 대한 책임을 과연 반발하고 나선 지역주민들에게만 전가시킬수 있을것인가?

물론 협의를 통한 합일점을 찾기 보다는 「목소리를 높이면 좀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비민주적인 아집에 사로잡혀 막무가내식 자기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를 비롯한 민간업체등 사업주체자들이 한걸음 앞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함에도 이같은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매우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키 위해 최선을 다했나 하는 점이다.

환경문제를 비롯한 인류역사상 최대의 위험시설로 치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원자력 발전시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가 견지하고 있는 原電건설을 위한 제반정책사항은 극도로 어려운 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여건과 대비해 볼 때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

프랑스가 현재 보유·가동중인 원자력발전기는 총 56기로 美國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자력발전국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발전량의 77%를 原電으로 충당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原電의존도가 단연 세계 제1위로 랭크돼 있기도 하다.

이같은 세계적인 原電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면서도 프랑스정부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原電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정부는 특히 원전시책에 관한한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고 소상하게 공개함은 물론 「원전은 결코 위험한 시설물이 아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들어가서 될 대상입지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인 경제혜택등 인센티브정책과 함께 근본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유치전략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인근지역주민들의 사소한 궁금중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제도를 수취인부

담의 상실전화를 가설하고 매달 원전주변지역의 농산물을 비롯 대기·해수·식수등에 대한 방사능오염도 측정을 실시해 월간자료로 제작,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서비스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프랑스정부와 해당 전력회사의 철저하고도 긴밀한 원전정책의 공개화를 토대로 한 각종 혜택부여와 함께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경주는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라는 공감대를 도출함으로써 세계적인 원전보유국으로의 명실상부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은 우리도 하루속히 본받아 우리의 것으로 정착시켜 나가야할 교훈적 표본이 아닐수 없다.

비단 이같은 사례는 에너지부문에서만 국한되는 해결과제만은 아니다.

모든 부문에 있어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民間기업,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기본골격하에 의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때이다.

精油社를 주축으로하고 석유대리점, 주유소로 이어지는 국내석유산업의 전반에 있어 도출되고 있는 각종 불협화음도 이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성 싶다.

물론 여기에는 정유사는 정유사대로, 대리점 및 주유소업체는 그들대로의 현실적으로 봉착해 있는 사정이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적해 있을 것이다.

정유사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저유분확충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 정부의 다소 보수적인 유가정책의 「기본틀」 고수에 따른 수익구조의 열악화, 정제시설의 사후관리 미비에서 기인되고 있는 공급과잉현상과 이로 인한 판매시장경쟁의 과열화, 중질유 분해·탈황시설등 시설 고도화사업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에 달하는 자금조달의 시급성에 반한 조성능력불비등 「산넘어 산」적인 해결과제를 부여안고 고민중에 있는 것이 정유업체가 처해 있는 현주소란점 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귀결되고 있다.

아무튼 국내석유산업 뿐만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위기국면을 맞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함께 몇번이고 되뇌어볼 필요가 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라고. ♪